

반세기를 거치며 쏟아낸 시작 열정

《성탄제》에서 《달맞이 꽃》까지

김종길

시인 · 고려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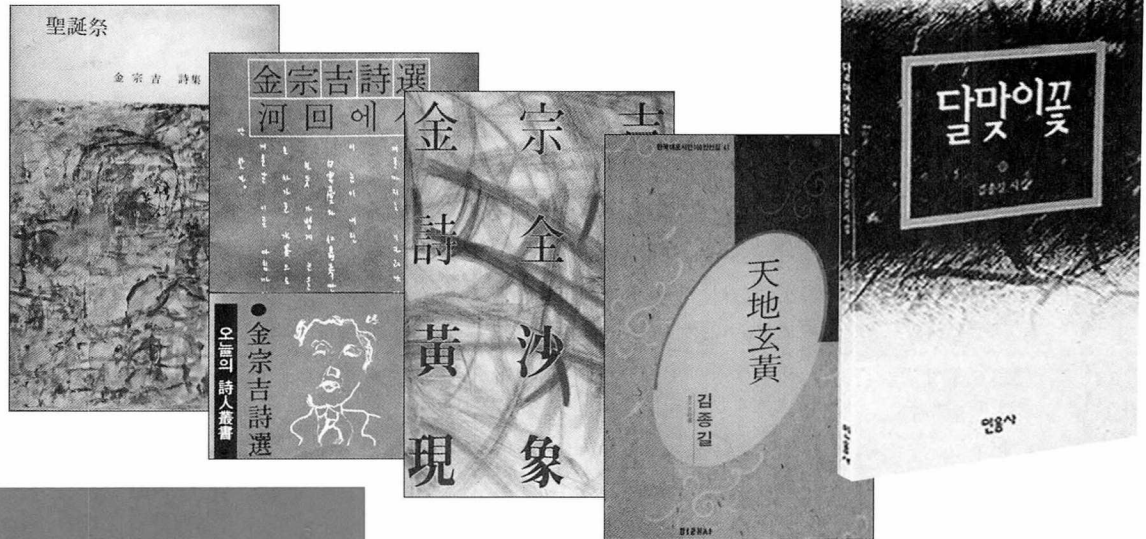
지난해 말, 정확히 말하면 1997년 12월 30일자로 나는 두 권의 책을 민음사를 통해 세상에 내놓았다. 시집 《달맞이 꽃》과 시론집 《시와 시인들》이 그것이다. 《달맞이 꽃》은 내가 낸 시집으로는 《성탄제》(1969), 《하회에서》(1977), 《황사현상》(1986) 및 《천지 현황(玄黃)》(1991) 다음에 나오는 것이니 다섯번째 것이요 《시와 시인들》은 《시론》(1965), 《진실과 언어》(1974) 및 《시에 대하여》(1986) 다음으로 낸 나의 네번째(영문 시론집 *The Darling Buds of May*까지 치면 다섯번째) 시론집이다.

등단 50년에 150편의 과작

《달맞이 꽃》은 내가 낸 다섯번째 시집이지만 완전한 신작시집으로는 두번째 시집이다. 왜냐하면 나의 둘째, 셋째 및 넷째 시집이 대체로 그 앞 시집의 내용에 신작을 보태어 낸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로도 내가 얼마나 시를 적게 썼으며 늘그막에 나로서는 얼마나 시를 많이 썼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4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지난해 등단 50주년을 맞았으면서 시집으로 묶은 총편수가 150여편밖에 되지 않으니 나는 무던히도 과작이었던 셈이다.

최근에 낸 책은 두 권이지만 여기서는 그 중의 한 권인 시집 《달맞이 꽃》을 최근작으로 하여 초기시부터 지난 반세기에 걸치는 나의 시작을 되돌아보려 한다. 내가 시집에 수록한 작품 가운데서 가장 연대가 앞서는 것이 〈소〉, 〈설야〉 및 〈문〉 세 편인데 모두 1946년에 쓴 것들이다. 이 중에서 〈문〉은 194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입선하여 그 지면에 발표되었고, 〈소〉는 피란중 대구에서 출판된 사회집에 처음으로 수록되었으며, 〈설야〉는 1947년 겨울 《고대신문》에 발표된 바 있으나 시집에 수록하기는 그것을 개작하여 《황사현상》에 실은 것이 처음이다.

〈만발〉은 1947년 봄에 쓴 것으로 시집에 처음 수록된 것은 역시 《황사현상》에서였다. 그 다음으로 1948년에 쓴 시가 〈노을〉, 〈연막〉, 〈달〉 및 〈바다에서〉인데 이 가운데서 〈노을〉과 〈달〉은 시집 《성탄제》에 수록되었지만 〈연막〉과 〈바다에서〉가 시집에



등단 50주년을 맞고서도 시집으로 묶은 총편수가 150편밖에 되지 않으니 무던히도 과작이었던 셈이다. 생전에 300편은 쓰고 싶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 노욕은 금물이니 한 편 한 편 정성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하려다.

처음으로 수록된 것은 《황사현상》에서였다. 이 작품들은 모두 나의 대학생 시절의 것들로 말하자면 습작기의 작품들이다. 해방되던 해 11월 해화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한 뒤 나는 열심히 습작을 했으나 1947년 9월 고려대 영문과에 편입한 뒤로는 영어와 영문학 공부를 위해 시작을 의식적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니 1948년에 쓴 네 편의 작품이 남게 된 것이 신기하기도 하다.

나의 습작기 작품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적어도 〈문〉과 〈만발〉 두 편은 정지용 시의 영향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만발〉을 여기에 옮기면 다음과 같다.

한나절 무풍상태,
벚꽃은 고독처럼 난만(爛漫)하다.

역사가 피었다 쫓겼로서니
이제 서러움 있을 리 없고,

궁 너머 둥근 하늘도
사뭇 꽃빛으로만 흐렸는데,

만발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낙화 직전!

조도 100의 지면에서
나는 그림자마저 잃다.

정지용의 시풍을 닮아

이 작품은 제목 밑에 '경복궁에서'라고 표시되어 있듯이 경복궁 경내의 만발한 벚꽃을 묘사한 것이다. 1947년 4월 거기서 열렸던 《학생문예신보》라는 주간지 주최의 대학생 백일장에 참가하여 입선한 작품으로 선자는 정지용 시인이었다. 그해 경향신문 신춘문예의 시부문 선자도 그분이었으니 나는 그해 두 번이나 그분에게 뽐힌 셈이다. 〈문〉과 〈만발〉이 지용의 영향을 보인 것은 그분이 선자여서 그분의 시풍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그 무렵 내가 가장 좋아한 시인이 그분이었기 때문이다. 이 두 작품 가운데서도 〈만발〉은 지금 보아도 신통하리만큼 그분의 시풍을 닮은 것 같다. 그러나 그 뒤 나는 엘리엇의 시와 비평을 공부하면서 한동안 그에게 심취하게 되어 지용과는 멀어져갔다. 그렇다고 내가 시작에서 엘리엇을 흉내낼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와 나는 다른 개인이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흔히 나를 이미지스트로 부르는 것 같으나 나는 현대 영미시 초기 유파의 하나인

이미지스트의 영향을 특별히 받은 것도 아니다. 내 시에 특히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져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접해온 한시, 일본시, 서구시 및 지용시와 같은 우리 시의 종합적인 영향 아래서 형성된 나의 시적 개성의 일면일 따름이다.

학생 시절의 습작기를 거쳐 내가 다시 시작을 시작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구에서 피란생활을 할 때이다. 그 당시의 작품인 〈주점서장〉과 〈주점일모〉가 1951년에, 내 작품으로는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듯한 〈성탄제〉는 1953년에 찍어졌다. 그러나 내가 1950년대에 발표한 작품은 모두 여덟편에 불과했고 1960년대에도 열네편을 발표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각각 30편 내외를 발표하여 나의 시작활동은 나이가 들수록 활발해진 셈인데, 이번에 시집으로 묶은 작품들이 찍어진 1991년부터 1996년까지 7년 동안 내가 여기 저기 발표한 작품의 편수는 아마 100편에 가까웠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니 나는 60대 후반부터 평생의 타성을 깨고 나로서는 엄청난 다작을 한 셈이다.

다작은 자연히 집중력의 강도를 떨어뜨리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기 쉽다. 그리하여 나도 적게 쓰던 과거보다는 쉽게 시작에 임하고 시의 스타일도 다양해지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 이번에 낸 《달맞이 꽃》에 수록된 작품들이 그와 같은 내 시의 새로운 경향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작품의 스타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데는 나 자신도 좀

융자금 200억원 운용방식 최종 결정

문예진흥원·한국출판금고 공동명의로 은행예치

놀라고 있다.

제재 다양해지며 새로운 스타일 보여

시집 머리말에서 '아무튼 내가 시에서 익살도 피워보고 능청도 떨어본 것은 이 시집에 들어 있는 몇몇 작품들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바'라고 말했지만 그와 같은 작품들만이 나의 새로운 시도는 아닌 것 같다. 거기에는 다음에 드는 것과 같은 그 이전의 내 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투도 눈에 띈다.

벼 한 사발과
바꾸던 굴 한 사발,
헛간 잣터미 그대로 뒤간이던,

송씨네 집의
두독한 초가 지붕,
이른 봄 햇살 오늘도 답히는가.
- <오칠조>에서

그땐 물도 바람도 참으로 맑았었다.
물웅덩이에 비친 저녁별이
풀꽃처럼 멀고 있었다.
- <저녁별>에서

시작에서 긴장을 풀고 제재나 시풍이 다양해지는 데도 득과 함께 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늘그막에 쓰는 시로서는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시에서도 노욕은 금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한 편 한 편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하는 자세만은 견지하려고 한다. 요즘도 심심찮게 시청탁을 받고 대개는 응하고 있으니 나의 노후의 다작은 적어도 당분간 계속될 듯하다. 생전에 시 300편은 쓰고 싶는데 어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금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고침

《출판저널》 제234호 13쪽 기사 가운데 공공도서관 자료 열람실 개방시간은 서울지역의 경우 하절기에는 오후 8시, 동절기에는 오후 7시로 조정,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판계에 긴급 투여될 예정이던 500억원의 향방이 갈피를 잡아가고 있다. 융자방식을 놓고 협상의 줄다리기를 하던 문예진흥원(원장 차범석)과 대한출판문화협회(이사장 나춘호)는 지난 16일 문예진흥기금 200억원을 진흥원과 (재)한국출판금고(이사장 김낙준)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용자(유통회사·출판사 등)는 출협에 지원신청서를 제

출하고, 출협은 심사를 거친 후에 실수요자를 선정 추천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수용자는 개별적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7%의 이자를 적용에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경부로부터 14.5% 이자율로 융자될 예정이던 300억원은 출판계가 한자리수 이하의 이자율이 적용되도록 요망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토리 1~5》(세익스피어/강분석, 비봉출판사),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박지원/김철조, 학교재), 《오직 하나의 사랑》(에릭 시걸/정영목, 김영사), 《나는 왜 이렇게 흥분을 잘할까》(박영수, 신원문화사), 《한눈팔기와 글쓰기》(김화영, 나남출판사), 《한국의 명시를 찾아서》(박재천, 문학아카데미), 《말을 찾아서》(이순원, 문이당) ▲역사 《페이건 교수가 스케치한 고고학 풍경 29가지》(페이건/남경태, 일빛), 《화담 서경덕》(이종호, 일지사), 《대마도 우리 역사 답사기》(인재환, 한림출판사),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김충영, 두남) 등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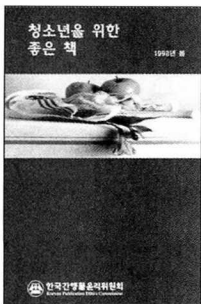
교보문고·대산문화재단 출판지원 나서

교보문고(대표 류건)와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이 양서발간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양측은 3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문학·예술·학술·교양 등의 단행본 양서류출판을 위해 매달 3~5권을 선정, 종당 5~7백만원의 출판비를 지원한다. 출판지원 대상은 매달 20일까지 출판사로부터 출판기획서·원고·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지원받은 출판사가 책을 출간하면 지원금에 해당하는 도서를 제출받은 재단은 대학·도서관·해외한국학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며, 교보문고는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교보문고는 대금결제기일을 평균 45일에서 한달 이내로 줄이고 현금결제 비중도 1백50만원으로 확대하여 출판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대금을 앞당겨 받으려고 정상적인 마진율보다 낮게 받는 입고를 자제하여 서적 유통질서 혼란을 막기로 했다.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발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가 신학기를 맞아 분기별 청소년 권장도서 105종을 묶은 목록집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을 발간했다. 지난 97년 7월부터 98년 3월까지



3차에 걸쳐 선정된 11개 분야 105종에 대한 내용요약을 독자대상 구분표시와 함께 수록해 청소년 독서지도에 유용하다. (719-4897)

《1997 문화산업백서》 발간

우리나라 문화산업 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의 모색을 담은 《문화산업백서》를 문화체육부에서 발간했다. 모두 3편으로 구성, 문화산업의 의의와 전망을 살피고, 영화 출판 만화 음반 비디오 컴퓨터게임 저작권 등 부문별 정책 현황과 성과를 서술했으며,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부문별 진흥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배포처는 문화관광부 문화산업 총괄과. (720-8033)

이달의 청소년 도서 선정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4분기에 발행된 도서 중에서 청소년들이 읽기에 알맞은 우량도서 17종 21책을 선정했다. 분야에 따라 ▲종교 《인간이란 무엇인가?》(남기영 외, 민음사), 《불교 이야기 유머》(유보산, 미래문화사) ▲사회과학 《선인들의 공부법》(박희병, 창작과비평사), 《북한이 열리면 21세기 가 보인다》(김학준, 동학사) ▲과학기술 《만득이의 물리귀신 따라잡기 1》(이공주복, 한승), 《바이오마이메틱스》(윤실, 전파과학사) ▲문학예술 《소설로 고쳐쓴 셰익스피어 스

웅진출판, '경제정의기업상' 수상



웅진출판사(대표 백석기)는 한겨레신문사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소장이 필상)가 주관하는 '경제정의기업상' 종이제지·출판부문 수상업체로 선정되었다. 조사대상 488개 상장회사 중에서 37위를 차지한 웅진은 심사에서 건전성과 종업원 만족도 그리고 성실납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비, 홈페이지 문 열어

창작과비평사의 홈페이지 디지털 창비(Digital Changbi)가 웹 사이트 문을 열었다. 홈페이지는 출판사에서 퍼낸 천여종의 책과 저자·역자·편자들을 사진 자료와 함께 검색할 수 있다. 사이트 주소는 <http://www.changbi.co.kr> 또는 <http://www.changbi.com>이다.